



2010 광주장애인아시아게임 개막을 이틀 앞둔 10일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선수위원 재선에 도전하는 김연연(사격)이 26번째 성황봉 송자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환호하고, 함께하고, 승리한다 (We Cheer, We Share, We Win)

## 광저우 장애인 AG 내일 개막

광주·전남 출신 이윤리·김영건 등 메달 사냥... 한국 종합 3위 목표

“우리는 환호하고, 함께하고, 승리한다”(We Cheer, We Share, We Win)  
 한국이 4회 연속 아시아게임 종합 2위를 지켜냈던 ‘환희의 땅’ 중국 광저우가 12일부터 다시 찬란한 성화로 빛난다.  
 ‘아시아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리는 아시아 장애인경기대회가 이날부터 여드레 동안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에는 총 18개 종목(19개 세부종목)에 40여 개국 5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총 432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광저우는 이미 지난 8일 장애인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단장한 선수촌을 열고 손님맞춤 서비스를 마쳤다.  
 한국은 전 종목에 선수 198명을 포함해 총 30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중에도 광주·전남지역 선수 11명이 6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 사냥의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여자 50m 소총 3차전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던 완도 출신 이윤리(36)가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또 2010 광주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오픈전에서 세계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깜짝 금메달을 따낸 광주 출신 김영건(26)도 메달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올랐던 한국은 광저우에서도 사격과 양궁, 배드민턴 등에서 금메달 35개와 은메달 24개, 동메달 56개 등 총 115개의 메달을 따 3위 수상을 목표로 삼았다.  
 500여 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내세운 중국은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종합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이번 아시아게임의 상징은 ‘꽃’이다. 대회 공식 엠블럼은 중국 북동부 전통가옥에서 많이 사용되던 꽃문자 청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

어진 것으로,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영상화했다.  
 ‘펀펀’(芬芬·Funfun)으로 불리는 대회 마스코트도 광저우 시화(市花)인 케이폭 나무의 꽃을 본떠 만들었다. 꽃잎이 마치 양팔을 벌리고 달려나가는 사람의 모양처럼 보인다. 선수들의 강한 힘과 의지를 표현했다.  
 12일 밤 광저우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돼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특히 800명의 군인이 아시아게임을 상징하는 꽃을 들고 엠블럼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장관을 연출한다.  
 또 많은 선수의 이동수단인 휠체어를 뜻하는 두 개의 바퀴를 들고 추는 춤은 꿈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표현해 장애인 선수들의 참가를 축하한다.  
 여기에 300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4000여 명이 한 무대에 서서 광둥 지방의 전통 노래를 부르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과 화합을 상징하는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 입단한 이승엽이 1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무라야마 구단 본부장.

‘거포’ 이승엽 日 오릭스 입단

“내년 30 홈런·100 타점 목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새 동지를 둔 ‘아시아의 거포’ 이승엽(34)이 내년 홈런 30개 이상을 때리고 100타점을 올려 화려하게 부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승엽은 10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기회를 준 오릭스 구단에 감사드립니다.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굳게 각오를 밝혔다. 이어 “5년간 뛰었던 요미우리 구단에도 감사드립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에는 그간 나를 2군에 계속 둔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겠다”며 설욕을 다짐했다.  
 지난 2일 이승엽과 1년간 연봉 1억5000만엔에 계약했다고 발표한 오릭스 구단은 일본에서 입단식에 앞서 한국 야구의 간판스타인 이승엽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한국에서 먼저 입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입단식에는 무라야마 요시오 오릭스 구단 운영본부장과 매리언 로버트슨 구단 고문이 동석, ‘한류거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무라야마 본부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승엽이 오릭스에 입단해 굉장한 기쁨이 좋다. 이승엽은 설명이 필요 없는 좋은 선수”라면서 “이승엽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인간성 등에 반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릭스가 속한 퍼시픽리그는 각 팀 전력 차이가 큰 곳이다. 이승엽이 맹활약을 펼칠 내년에 꼭 우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연합뉴스

### 태극3인방 주말 골사냥

이청용·박주영·손흥민 출격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차세대 주자 이청용(22·볼턴)과 프랑스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박주영(25·AS모나코)이 나란히 주말 공격 포인트 ‘사냥’에 나선다.  
 이청용은 오는 12일 오후 10시30분(이하 한국 시간) 영국 볼턴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0-2011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블랙번 로버스와 홈경기에서 시즌 3호 골에 도전한다.  
 앞서 처른 16차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하며 팀의 주전으로 확실하게 입지를 다진 이청용은 이번 시즌 2골 5도움으로 순항 중이다.  
 박주영(25)은 13일 오전 1시 모나코의 스타드 루이2세에서 열리는 프랑스 정구리그(리그1) 생테티엔과 17라운드 홈경기 출격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8일 OGC 니스와 15라운드 홈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시즌 5호 골을 뽑아내 팀 내 최다 득점을 달리고 있는 박주영은 5일 스타드 렌과 원정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하지만 2승5무9패(승점15)로 강등권을 간신히 벗어난 17위에 머무르고 있는 AS모나코에서 최근 ‘11월의 선수’로 뽑히는 등 팀을 연패 수렁에서 건져주리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신성’ 손흥민(18·함부르크SV)은 11일 오후 11시30분 열리는 정구리그 16라운드 레버쿠젠과 홈 경기 출전이 유력하다.  
 최근 아시아컵 예비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린 손흥민은 지난 5일 프라이부르크와 원정 경기에서 팀의 0-1 패배를 막지는 못했지만 폴타임을 뛰면서 팀의 공격 기회를 거의 도맡다시피하는 인상적인 활약으로 4호 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2010 광주아시아게임 전남 소속 선수단 격려행사에서 박주영 도지사를 비롯해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인라인롤러 이지현, 사이클 이은지·나아름, 하키 김보미, 수영 정다래, 박주영 전남지사, 펜싱 이우리, 인라인롤러 성낙준 코치, 볼링 최복음, 하키 김은실, 카누 이병택.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을 빛낸 아시안게임 영웅들 환영”

전남도, 수영 열쌍 정다래·볼링 3관왕 최복음 등 초청 격려

전남도는 10일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남도 출신 선수들을 초청, 격려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여자수영 열쌍 스타 정다래(19·전남수영연맹)와 볼링 3관왕에 빛나는 최복음(23·광양시청) 등 메달리스트 10명과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사이클 여자 20km 포인트 레이스 결승에서 경기 도중 경쟁 선수와 부딪혀 아쉽게 메달을 놓친

나아름(20·나주시청)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를 주관한 박주영 전남지사는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이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박 지사는 “기업이 체육을 육성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며 “젊은이들이 운동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혜가 필

요한 만큼 꼭 선수들이 책을 읽었으면 한다”며 “경기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승리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행사를 마친 뒤 정다래는 “쉬고 싶는데 너무 일정이 바빠서 쉬 수 없다”며 “입춘 계획이 아직 안나와 본격적인 훈련은 입춘 이후에 시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다래는 이어 “많은 응원에 감사하다”며 “예뻐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 김연아 ‘베스트 드레서’ 스타에

美 경제전문지 포브스 선정

‘피겨 여왕’ 김연아(20·고려대)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베스트 드레서’ 스포츠스타로 뽑혔다.  
 포브스는 9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스포츠스타 15명을 선정하며 그중 하나로 김연아를 꼽았다.  
 포브스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는 한국 최고의 슈퍼스타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여성 선수”라고 소개하며 “스타일도 뛰어나다. 김연아의 대담하고 선도적인 스키어링 의상은 블로그 등에서 화제가 된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또 김연아가 고려대에 처음 등교한 날 입었던 검은색 블레이저와 티셔츠 등을 언급하면서 “이날 그녀가 입은 옷의 브랜드를 알아내려는 사람들이 인터넷과 백화점 등에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고 전했다.  
 김연아와 함께 옷 잘 입는 운동선수로는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의 드웨인 웨이드와 르브론 제임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등이 뽑혔다.  
 여성 스타 중에서는 승마 선수 샬롯 카시라기(모나코)와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 비너스와 서리나 윌리엄스(미국) 등이 선정됐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김연아가 유일하게 ‘베스트 드레서’로 거론됐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